

KOSDAQ | 제약과생물공학

듀켄바이오 (176750)

방사성의약품 Next Chapter, 치매와 전립선암 진단의 새로운 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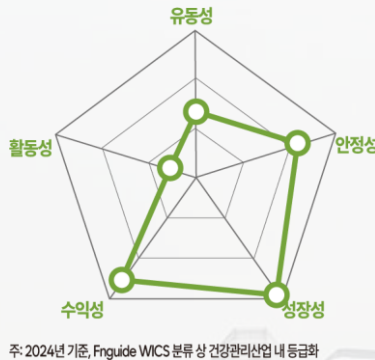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L/I)의 잠재적 성장력:**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 국내 출시로 투약 전 필수 절차인 아밀로이드 PET 검사 수요가 급증하며, 듀켄바이오가 94% 이상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최대 수혜주로 부각
- **전립선암 진단제 '프로스타시크주' 출시 모멘텀:** 2025년 10월 국내 최초 PSMA PET 진단제(L/I) 출시 예정으로 초기 시장 독점 전망, 기존 FDG 전국 공급망을 활용해 빠른 시장 확산 가능
- **2026년 본격 고성장 확인 구간:** 당해는 전환기적 시기이며, 2026년부터는 '프로스타시크주'의 연간 매출 반영 및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의 가파른 성장으로 외형 및 수익성 동반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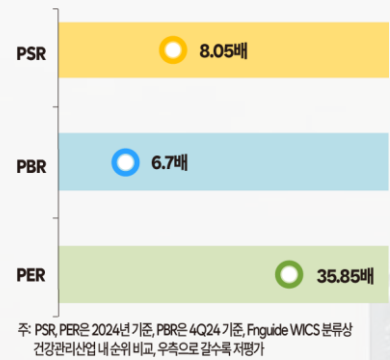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듀켄바이오 (176750)

Analyst 김승준, PharmD edwardsj@kirs.or.kr

RA 박규연 park.gyuyeon@kirs.or.kr

KOSDAQ

제약과생물공학

FDG 기반 안정적 현금흐름, 차세대 포트폴리오로 성장 2막 개시

듀켄바이오는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 기업으로, FDG(암 진단용), FP-CIT(파킨슨병 진단용) 등 핵심 방사성 진단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왔으며, 전국 단위의 글로벌 수준의 GMP 인증 생산시설을 갖춰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및 공급망 보유. 2024년 12월 코스닥 이전 상장 이후,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 '뉴라체크'와 '비자말', 전립선암 PSMA PET 진단제 '프로스타시크주' 등 차세대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성장의 2막을 열고 있음.

레켄비 수혜 + PSMA 진단제 출시에 따른 듀켄바이오 성장 모멘텀 확대

동사는 2024년 11월 일본 Eisai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투약 전 필수 절차인 아밀로이드 PET 검사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 현재 동사는 국내 아밀로이드 PET 시장에서 94%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뉴라체크'와 '비자말'의 매출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여기에 더해, 2025년 10월 출시 예정인 '프로스타시크주'는 국내 최초의 전립선암 PSMA PET 진단제로, 출시와 동시에 독점적 시장 지위 확보 가능. 이미 PET-CT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환자 접근성이 높으며, 기존 FDG 기반 전국 공급망을 활용해 빠른 시장 확산이 가능.

2025년,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의 서막

2025년은 동사의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 진입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97억 원(+11.5% YoY), 영업이익은 57억 원(+12.3% YoY)으로 전망. 올해 매출 성장의 핵심은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 '뉴라체크'와 '비자말'. 전립선암 진단제 '프로스타시크주'는 10월부터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일 전망. 본격적인 성장세는 2026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프로스타시크'주가 연간 실적에 온전히 반영되면서,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 처방 확대가 PET 검사 건수 증가로 이어지며, '뉴라체크'와 '비자말'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04	324	347	356	397
YoY(%)	-33.3	211.1	7.0	2.6	11.5
영업이익(억원)	6	16	53	51	57
OP 마진(%)	5.8	4.8	15.1	14.3	14.4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6	-26	41	75	55
EPS(원)	108	-105	151	276	193
YoY(%)	흑전	적전	흑전	83.5	-30.2
PER(배)	75.0	N/A	36.5	29.5	54.8
PSR(배)	11.6	4.1	4.3	6.2	7.6
EV/EBITDA(배)	70.3	17.9	15.3	22.4	27.9
PBR(배)	13.2	7.6	6.9	5.5	6.3
ROE(%)	42.7	-16.6	20.8	23.5	12.2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4)	10,580원
52주 최고가	19,460원
52주 최저가	7,360원
KOSDAQ (9/4)	805.42p
자본금	146억원
시가총액	3,011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8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6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6억원
외국인지분율	10.8%
주요주주	지오영 외 9인
	61.23%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3	-9.4	-19.5
상대주가	-2.4	-17.0	-26.9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방사성의약품 진단제를 기반으로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코스닥 이전 상장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는 기업**

듀켄바이오는 2002년 11월 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인 (주)메딕보스로 설립된 이후, 2007년 사명을 변경하며 본격적으로 의료/제약 사업에 진출했다. 2009년 강원대학교 방사성의약품 제조소 인수와 2010년 한양대학교병원 제조소 신설을 통해 방사성의약품 제조 역량을 확보하며 신약 개발 기업으로 변모했다. 이후 인천성모병원, 대전을지병원 제조소 인수와 칠곡경북대병원 제조소 신설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 주요 거점 병원 중심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2014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며 자본시장에 진입한 뒤, 2024년 12월 20일 코스닥 이전 상장에 성공하며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로, 핵심 제품군으로는 FDG주사액(암 진단용), FP-CIT주사액(파킨슨병 진단용), 그리고 알츠하이머 진단제인 '뉴라체크'와 '비자밀' 주사액이 있다. FDG는 포도당 유사체인 18F-FDG가 종양세포에서 활발히 대사되는 특성을 이용해 포도당 대사가 높은 모든 종양의 진단에 활용된다. FP-CIT는 도파민 운반체에 결합하는 코카인 유사체 기반의 파킨슨병 진단제이며, '뉴라체크'와 '비자밀'은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PET 영상으로 확인해 조기 진단 및 치매 감별에 사용된다. 특히 2024년 11월 일본 Eisai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가 국내에 본격 출시되면서 아밀로이드 PET 진단 수요는 향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능력은 FDG 12만 도즈, FP-CIT 1.5만 도즈, 뉴라체크 5.25만 도즈, 비자밀 3.75만 도즈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FDG의 가동률은 94%에 달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뉴라체크'와 '비자밀'은 현재 최대 9만 도즈까지 생산할 수 있으나, 치매 진단제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28년까지 최대 21만 도즈 규모로 생산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제조센터 중 6개는 글로벌 수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획득하여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수출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2024년 수출액은 약 0.5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0.1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대만 Pet Pharm Biotech와 호주 Cyclotek와 FP-CIT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글로벌 매출 확대에 대한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 주요 대형병원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약을 발판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연혁

2002~2013	2014~2021	2022~
2002.11 (주)메디보스 설립 2007.12 (주)듀켄바이오로 상호명 변경 2009.09 강원대학교 방사성의약품 제조소 인수 2010.05 한양대학교 방사성의약품 제조소 신설 2010.11 동강메디칼 인수(인천성모병원, 대전율지병원 제조소) 2011.02 철국경북대병원 방사성의약품 제조소 신설 2012.04 (주)비코헬스케어 (진단시약 유통) 인수 2013.11 독일LM(구 Piramal)와 치매진단제(뉴라체크) 국내 독점 계약 체결	2014.12 코넥스 신규 상장 2016.06 서울 아산재단과 뇌종양진단제(F-DOPA) 특허양수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7.06 파킨슨병진단제(FP-CIT) 해외 수출 계약 체결 (호주, 뉴질랜드) 2019.06 일본 NMP와 재발성 전립선암 진단제(FACBC) 국내 개발 및 상용화 독점 계약 체결 2020.12 호주 Telix와 전립선암 진단제 (TLX591-CDx)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21.08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 합병 2021.09 국내 최초 재발성 전립선암 진단제 (FACBC) 식약처 승인	2022.04 도파메크주사(에프도파 18F)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 2022.11 국내최초 재발 전립선암 PET-CT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ACBC(18F 플루시클로반) 런칭 2023.01 도파메크주사 파킨슨병, 파킨슨증후군 적응증 추가 신의약품평가 고시 2023.10 산소-18(O-18)농축수 재활용을 위한 화수 및 정제시설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허가 취득 2024.06 치료용동위원소 국내제조를 위해 케네디(Knectrics)사와 국내외 공급망 구축 관련 MOU 체결 2024.08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의 오승준 교수가 설립한 방사성의약품 R&D 전문기업 (주)라디오앤앤스랩스 100% 지분 인수 2024.12 코스닥 이전상장 2025.04 파킨슨병진단제(FP-CIT) 해외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대만 PPhBio) 2025.07 차세대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시크 주사액' (성분명 18F-플로루로스타트) FDA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1. FDG (악성종양, 심장병, 간질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2024 매출 비중: 58.5%)

FDG는 암세포의 활발한 포도당 대사를 영상화해 조기 진단, 병기 설정, 치료 반응 평가 등에 활용되는 국내 PET 진단 1위 제품으로, 전국 공급망과 안정적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전립선암 PSMA 진단제 등 차세대 포트폴리오 확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 중

FDG(F-18 FluoroDeoxyGlucose)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포도당 유사체로, 인체 내 세포 대사 활동을 영상화하는 대표적인 분자영상 진단제이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고,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하여 분해하는 해당작용(glycolysis)이 매우 활발하다. FDG는 체내에서 포도당처럼 세포로 유입되지만, 대사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세포 내에 축적된다. 이때 방출되는 양전자(positron)가 주변 전자와 만나 소멸하면서 감마선을 발생시키고, 이를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양전자방출단층촬영) 장비가 포착해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한다. 간단하게 보면 암세포가 존재하는 부위는 포도당 대사가 활발해 FDG가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밝게 빛나는 신호'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FDG PET 검사는 악성종양의 조기 발견, 병기 설정(암의 진행 단계 파악), 재발 여부 탐지 및 항암치료 반응 평가에 필수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심근 세포의 생존 평가(심장 질환)와 뇌전증 병소 탐지(신경 질환)에서도 유용하게 쓰여,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이다.

듀켄바이오는 2010년 FDG 국내 허가를 획득한 이후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했다. FDG는 반감기가 약 110분에 불과해 생산지에서 일정 반경 이내의 의료기관에만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당사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제조소를 설치하여 지역 기반 공급망을 마련했다. 이는 시간과 거리 제약이 큰 FDG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로, 당사 2021년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공급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현재 당사는 전국에 12개 제조소를 보유, 이 중 6곳이 GMP 인증을 완료하여 권역별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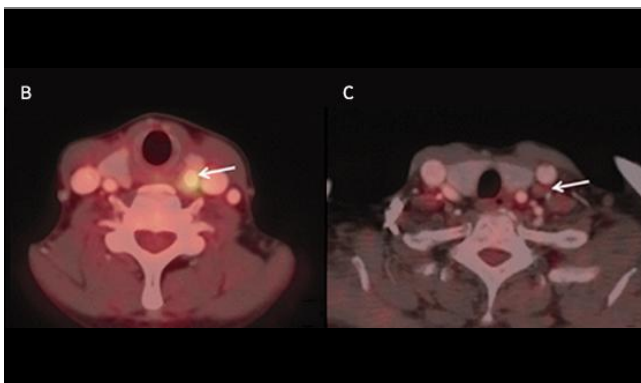
FDG 사업은 동사의 안정적인 현금창출 기반을 담당한다. 국내 PET 진단 시장에서 약 53.5%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다른 신제품 사업 확장에도 재무적 버팀목으로 작용한다. 과거 2014년 정부의 암 환자 FDG 보험급여 축소 정책으로 일시적 수요 위축을 경험했으나, 당사는 생산 거점 확충과 제품 다변화를 통해 빠르게

매출을 회복시켰다. 이후 암 진단 외에도 심장 및 뇌 질환 등 다양한 적응증에서 활용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FDG 인프라는 동사가 향후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미 동사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진단제로의 공급을 확대해왔으며, 최근에는 전립선암 분야로의 진입도 본격화하고 있다. 2023년 12월, 동사는 Blue Earth Diagnostics(영국)와 세계 최초 radio-hybrid PSMA(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진단제 ‘¹⁸F-rhPSMA7.3(프로스타시크)’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식약처 허가를 거쳐 하반기 10월부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FDG와 더불어 전립선암 환자 선별 및 추적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차세대 진단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암 중 4위 발생률, 5위 사망률을 기록하는 주요 암종으로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PSMA PET 도입은 FDG 기반 암 진단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며 시장 외연을 확장할 전략적 기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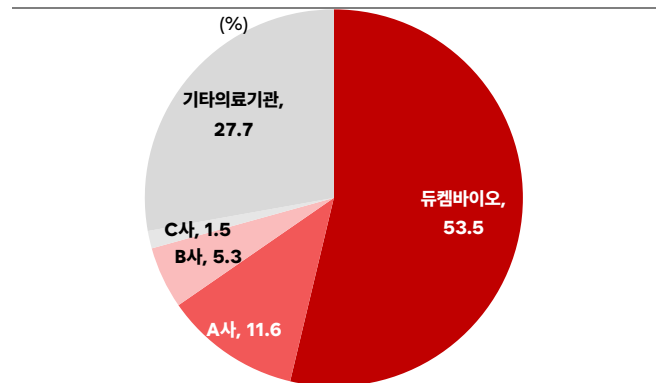
따라서 향후 FDG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제품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품질 안정성과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 기존 FDG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진단제 사업을 병행하여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FDG 사업은 동사의 현재를 지탱하는 동시에 미래 확장의 토대가 되는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FDG 종양 촬영 진단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FDG 방사성의약품 시장 점유율 (2023)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라체크’와 ‘비자밀’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단백질인
Beta-Amyloid 축적을 영상화해
조기 진단과 환자 선별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독점 PET 진단제로,
알츠하이머 신약 시대의 핵심
관문이자 동사의 신경질환 진단
포트폴리오 확장의 전략적
기반으로 활약 중

2. 뉴라체크 & 비자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 2024 매출 비중: 14.4%)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은 뇌 속에 Beta-Amyloid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일 때는 이미 상당한 신경세포 손상이 진행된 상태이며, 기존의 인지검사나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만으로는 확진에 한계가 있었다.

듀켄바이오가 라이선스인 계약한 ‘뉴라체크’(Neuraceq, 성분: 18F-Florbetaben, Life Molecular Imaging[독일])와 ‘비자밀’(Vizamyl, 성분: 18F-Flutemetamol, GE Healthcare[미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Beta-Amyloid PET 진단제다. 주사 후 뇌에 침착된 Amyloid Plaque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며,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 신호를 PET 장비가 포착하여 뇌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많은 Amyloid가 축적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영상에서 Plaque가 많이 축적된 경우에는 뇌 전반에 걸쳐 밝은 신호가 나타나 알츠하이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신호가 거의 없으면 다른 치매일 가능성이 크다. 이 원리는 임상에게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과 감별진단, 환자 선별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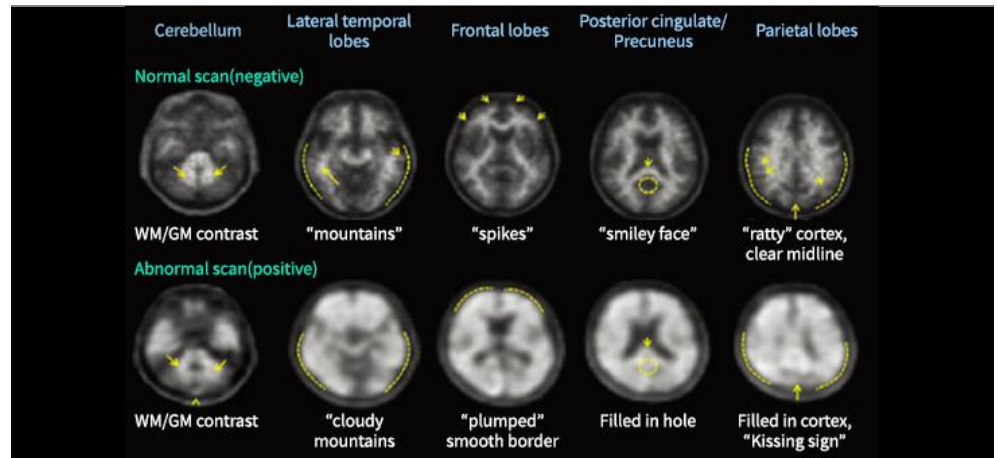
특히 최근 글로벌 블록버스터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가 국내에도 허가된 이후 24년 말부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약물 투여 전 반드시 아밀로이드 축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진단제의 임상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환자에게는 뇌척수액 검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비침습적 검사라는 장점이 있고, 의료진에게는 고가 치료제 투여 대상 환자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사는 2015년 두 제품의 국내 허가와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Amyloid PET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점유율은 약 94% 이상에 달하며, 주요 대학병원과 치매센터에서 표준 검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FDG, FP-CIT 공급 경험을 통해 구축한 전국 단위의 생산 및 공급 인프라 덕분에,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의약품의 공급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다.

사업 전략적으로 ‘뉴라체크’와 ‘비자밀’은 단순한 진단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상용화가 본격화 되면 PET 진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동사는 이에 대비해 생산능력 확충, 원개발사와의 협력 강화, 차세대 타우 단백질 PET 추적자 확보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두 제품은 건강보험 비급여 상태라 환자 부담은 크지만, 현재 치매 치료제 ‘레켄비’를 급여 처방받기 위해서는 ‘뉴라체크’나 ‘비자밀’ 같은 진단제를 활용한 PET 검사를 진행해야만 하기에 시장 매출 확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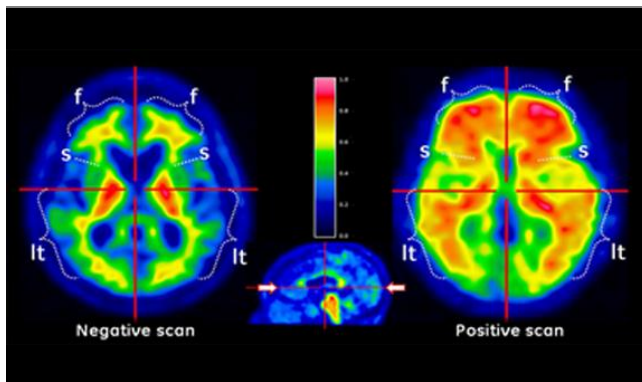
이에 따라 ‘뉴라체크’와 ‘비자밀’은 단순한 치매 진단제를 넘어 ‘알츠하이머 신약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하며, 동사가 향후 신경질환 진단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립하는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뉴라체크 치매 Amyloid 이미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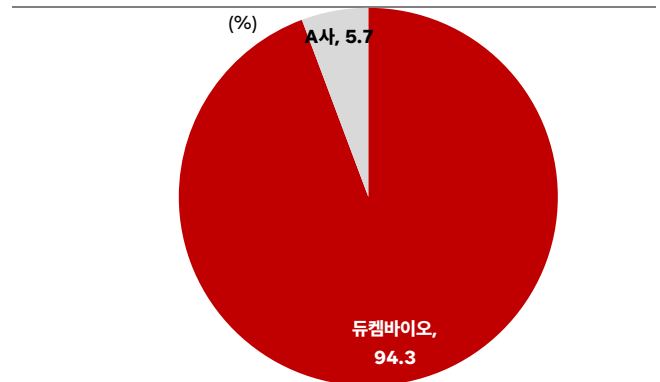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비자밀 치매 Amyloid Imaging Agent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치매 방사성의약품 진단제 시장 점유율 (2023)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FP-CIT (파킨슨병 진단 방사성의약품, 2024 매출 비중: 9.4%)

FP-CIT은 도파민 운반체에 결합해 뇌 도파민 신경 기능을 영상화함으로써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과 감별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독점 PET 진단제로, 안정적 시장 지위와 공급망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까지 모색하며 동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듀켄바이오의 FP-CIT(FluoroPropyl-Carbomethoxyiodopropyl-nor-B-Tropane (18F) injection)은 뇌 속 도파민 신경 기능을 직접 영상화할 수 있는 PET 진단제다. 파킨슨병은 중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증상이 발현될 때는 이미 50% 이상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손떨림, 근육 경직 등 임상 증상에 의존해 진단하거나 정확도가 낮은 검사법에 의존해야 했기에,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진단과 본태성 진전 같은 다른 운동장애 질환과의 감별이 어려웠다.

FP-CIT은 화학적으로 도파민 운반체 DAT(Dopamine Transporter)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분자다. 주사 후 뇌로 유입되면 선조체(striatum) 부위의 도파민 신경 말단에 존재하는 DAT에 결합한다. 정상인의 경우 DAT이 풍부하여 PET 영상에서 강한 신호(밝은 영상)가 나타나지만,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신경세포가 소실되어 DAT 밀도가 현저히 줄어 신호가 약하거나 결손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FP-CIT PET 검사는 뇌의 도파민 신경 손상 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조기 진단뿐 아니라 병의 진행 정도 평가에도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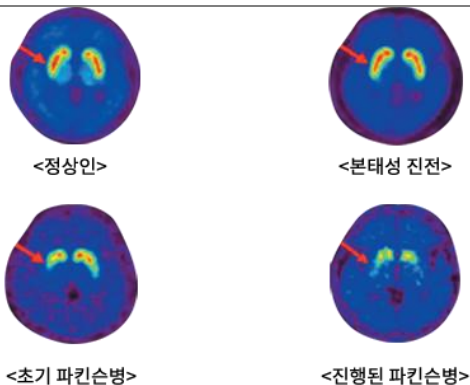
동사는 2012년 국내 최초로 FP-CIT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상용화에 성공했다. 단순 수입판매가 아닌 원료, 합성 키트, GMP 생산공정까지 자체 기술을 확보한 사례로, 이를 기반으로 독점적 시장 지위를 구축하였다. 현재까지 누적 12만 건 이상의 임상 사용이 이루어졌으며, 시판 후 조사 PMS(Post Market Surveillance)에서도 안전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었다. 현재 FP-CIT은 국내 신경과 및 핵의학과에서 사실상 표준 진단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사업 전략 측면에서 FP-CIT은 단순한 국내 독점 제품을 넘어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평가된다. 2025년 동사는 PET Pharm Biotech(대만) 및 Cyclotek(호주)와 FP-CIT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허가, 생산, 판매를 파트너사가 담당하고 동사는 기술 및 원료를 공급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로열티 수익 창출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확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일본, 동남아,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적극 검토 중이다.

FP-CIT의 공급망은 FDG 사업과 유사하게 권역별 GMP 제조소 네트워크에 기반한다. 반감기 제약이 크기 때문에 당일 생산 및 배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료 합성 키트와 일회용 카세트를 자체 개발 및 최적화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점은 해외 파트너십에서도 기술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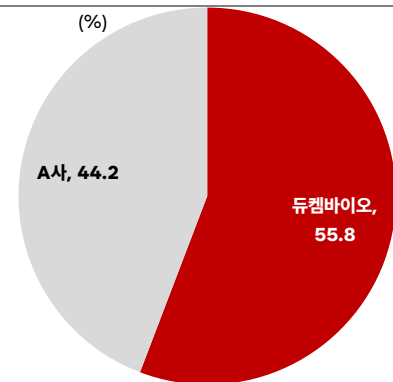
이에 따라, FP-CIT은 동사의 성장 동력이자 글로벌 진출의 선도 사례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파킨슨병 조기 진단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가 국내 시장 우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진단제 공급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사업이다.

FP-CIT, 파킨슨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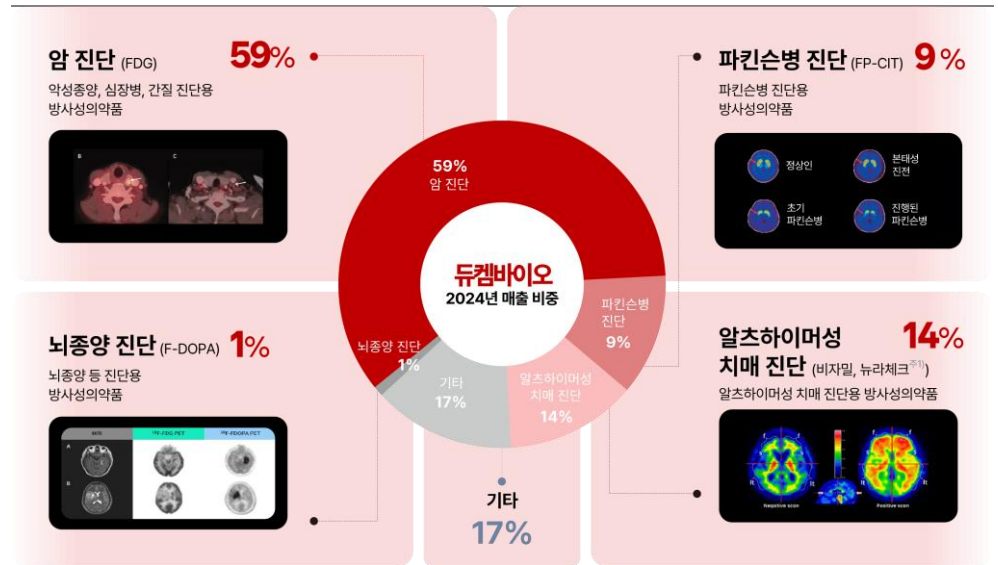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파킨슨병 방사성의약품 진단제 시장 점유율 (2023)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듀켄바이오 매출 비중 (2024)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기업 및 주주 구성

1. 종속 회사

듀켄바이오는 2024년 8월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주)라디오디앤에스랩스의 지분 100%를 인수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라디오디앤에스랩스는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국내 방사성의약품 분야에서 차별화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주도하는 오승준 교수는 국내 핵의학 연구의 선도적 인물로, FP-CIT(파킨슨병 진단제), FES(유방암 진단제), F-Dopa(뇌종양 진단제) 등 다수의 핵심 방사성 진단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자회사를 통해 듀켄바이오는 기존의 상용화 제품(FDG, FP-CIT, 뉴라체크, 비자밀 등)에 더해 차세대 파이프라인 확보와 기초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치매, 파킨슨병, 암 진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확립하는 전략적 시너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속회사 (2025.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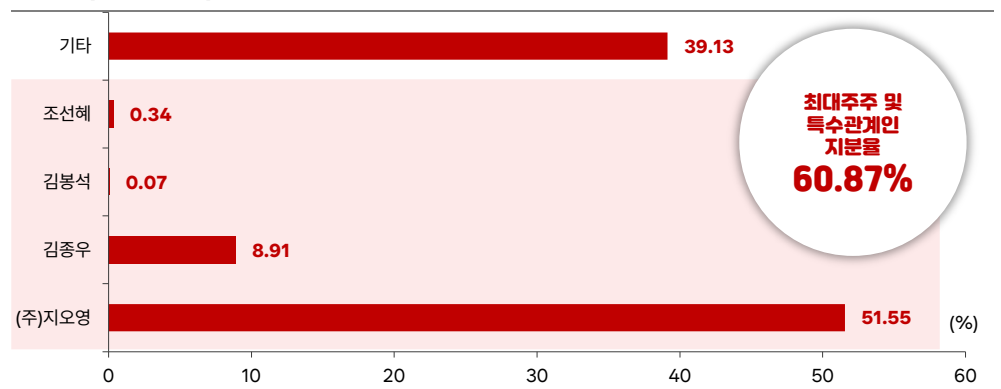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주주 구성

2025년 6월 말 기준, 듀켄바이오의 최대주주는 (주)지오영으로, 보통주 14,669,130주를 보유하며 지분율 51.55%를 차지하고 있다. (주)지오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으로, 약국 및 병원 등 요양기관과 제약사 및 도매상에 의약품을 구매 및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5년 6월 말 기준,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리스크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합산할 경우 총 17,321,224주로, 전체 보통주의 60.87%를 점유한다. 특수관계인에는 김종우(8.91%), 김봉석(0.07%), 조선헌(0.34%)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17,7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0.06% 수준이다. 5% 이상 지분 보유자는 최대주주 (주)지오영(51.55%)과 특수관계인 김종우(8.91%)로, 경영권은 사실상 최대주주 측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구조다.

주주구성 (2025.06.30)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방사성의약품 산업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아우르는 정밀의료 핵심 분야로,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확대될 전망. 국내 역시 FDG 및 알츠하이머 PET 등 진단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듀켄바이오와 퓨처켄 같은 전문 기업이 인프라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정밀의료 핵심 분야로,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isotope, *동일한 원소이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 중, 불안정한 원자핵을 가져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짐*)과 이를 병변 부위로 운반하는 화합물로 구성되어, 체내에서 특정 조직에 결합해 방사선을 방출함으로써 영상 촬영이나 표적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일반 의약품이 화학적 및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 약효를 발휘하는 것과 달리, 방사성의약품은 물리적 방사선에너지가 직접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별화된다.

또한 방사성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병원 인근의 특수 시설에서 소규모로 생산 및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핵심 성분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짧은 반감기 때문으로, 제조 후 빠른 시간 내 환자에게 투여되어야 하며, 중앙에서 대량 생산 후 장거리 운송하는 일반 의약품 방식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진단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8F의 반감기는 약 110분으로, 생산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이 급격히 감소해 사용 가능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방사성의약품은 재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일 새벽부터 제조해 오전에 병원으로 배송하고 오후에는 폐기되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운반 거리에 제약이 있어 지역별 제조소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는 높은 시설 투자 비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생산, 물류, 영업 전반에서 일반 제약산업과 전혀 다른 밸류체인을 형성하며, 이는 시장 확대 속도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특성은 제조 인프라와 공급망 역량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만들며, 진입장벽이 높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장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79.6억 달러 규모였던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0%가 넘는 고성장을 이어가며 2033년에는 218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단제와 치료제 모두 고성장이 예상되는데, 진단용이 여전히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치료용 역시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아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은 암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심화, 영상 진단 기술 혁신, 정밀의료 확대,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와 전립선암 PSMA(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진단 및 치료제는 글로벌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대표적 영역으로 꼽힌다.

방사성 의약품 특징

- 방사성동위원소가 핵심(진단/치료) 역할, 의약품은 타겟 질환으로 이끄는 캐리어/보조 역할을 하는 특징
- 약효에 대한 짧은 반감기 존재로 인한 일반의약품과 큰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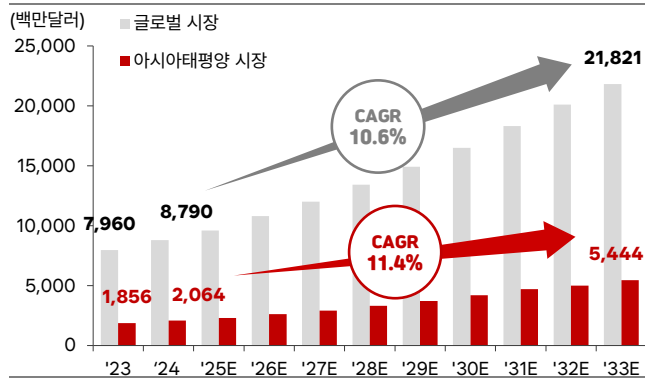
- 완제품: **재고 "O"** → 전국망 제조소 / 원료 카세트기술 수출
- 제조기술: **고수율 및 제조 안정성** → 상업성 결정
- 신약개발: **후보물질 + 제조기술** → 제조기술 확보없이 개발불가
- 마케팅: **안정적 공급이 핵심** → 전국망 | Back-up 제조소

- 적용 가능한 다수의 후보물질이 존재하는 조기 시장의 블루오션
- 각각의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 제조 기술 확보 및 제조 설비 투자로 일반의약품 대비 높은 진입장벽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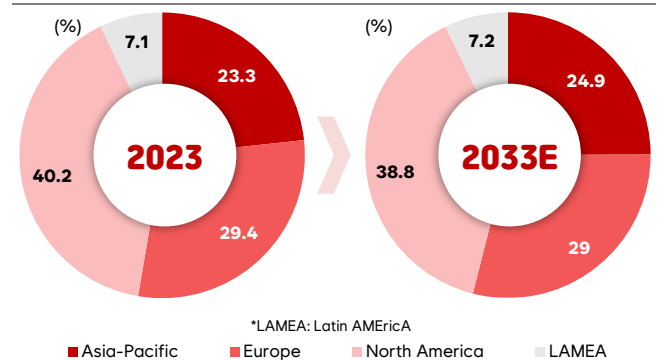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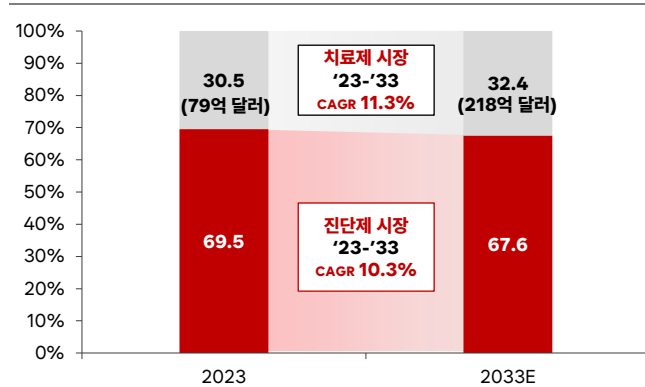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시장 규모 비중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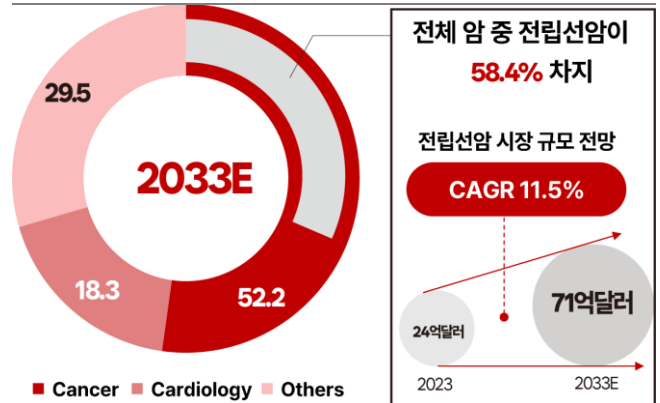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야별 방사성의약품 비중 및 시장 규모 전망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질환별 방사성의약품 시장 규모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러한 성장성에 힘입어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략적 행보도 활발하다. Novartis(스위스)는 2024년 방사성의약품 개발사 Mariana Oncology를 17.5억 달러에 인수했고, AstraZeneca(영국)는 2024년 Fusion Pharma를 20억 달러에, 2023년 Eli Lilly(미국)는 POINT Biopharma를 14억 달러에 각각 인수하면서 관련 파이프라인을 대거 확보했다. 이처럼 글로벌 빅파마는 방사성의약품을 미래 성장축으로 짚고 공격적인 M&A(Merger & Acquisition)를 통해 시장 진입과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보험 제도와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럽은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치료제 임상과 상업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의료 투자 확대와 핵의학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면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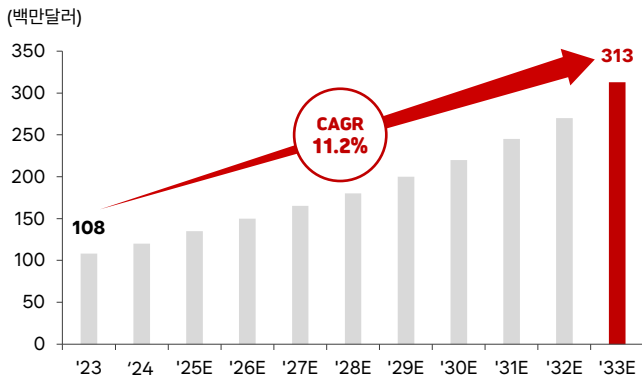
최근 방사성의약품 바이오텍 M&A 현황

	• 17.10월 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AAA) 인수(\$3.9b, Lutathera 확보) • 18.10월 Endocyte 인수(\$2.1b, ¹⁷⁷Lu 기반 Pluvicto 확보) • 24.5월 Mariana Oncology 인수(\$1.75b, ²²⁵Ac 기반 RLT 치료제 MC-339 확보)
	• 2021.6월 Noria Therapeutics, PSMA Therapeutics 인수(Undisclosed) • ²²⁵Ac 기반 알파 입자 후보물질과 PSMA 타겟 저분자화합물 확보
	• 2023년 POINT Biopharma 인수(\$1.4b) • ¹⁷⁷Lu 기반 임상 3상 루타테라, 플루빅토 경쟁 약물 확보 • ²²⁵Ac 고품질 물질 확보
	• 2023년 나스닥 상장 3개월차 바이오텍인 RayzeBio 인수(\$4.1b) • ²²⁵Ac-신경내분비종양 타겟 물질 확보(루타테라 경쟁 물질)
	• 2024년 Fusion Pharmaceuticals 인수(\$2.0b) • ²²⁵Ac 기반 전립선 암 치료제 FPI-2265 확보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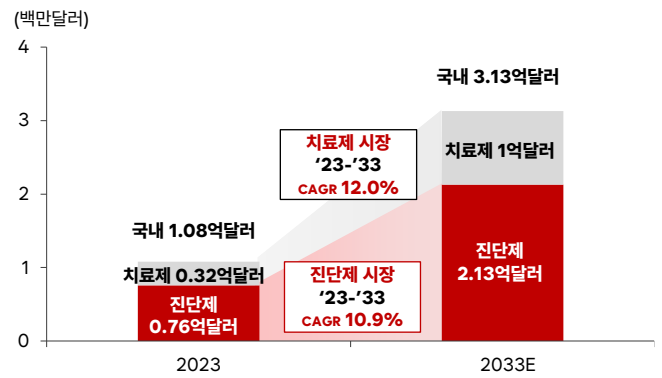
국내 시장은 글로벌 대비 절대 규모는 작으나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 2023년 약 1.08억 달러 규모에서 2033년 약 3.13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방사성 의약품 진단제 및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11%보다 더 높은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알츠하이머 Beta-Amyloid PET 진단제와 같은 신규 제품의 도입과 암 조기진단 수요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소수의 전문 생산시설에서 수요지 인근으로 즉시 생산 및 공급되는 네트워크에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짧아 중앙집중식 대량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대학병원과 연구기관 주도로 Cyclotron(*PET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장비*)이 구축되어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과 한국원자력의학원 KIRAMS(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같은 공공기관이 핵심 동위원소 생산을 담당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듀켄바이오와 퓨처캠, 셀비온이 대표적 플레이어로, 듀켄바이오는 FDG, FP-CIT, 알츠하이머 PET 제제 등을 중심으로 국내 진단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퓨처캠과 셀비온은 신약개발과 글로벌 임상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SK바이오팜 등 대형 제약사들도 해외 기업과 제휴하며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등 플레이어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 규모 전망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야별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 규모 전망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제도 환경 또한 산업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암 환자 PET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 반면, 급여 기준 강화와 사후 심사 강화로 인해 한때 검사 건수가 급감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보험 급여 정책이 방사성의약품 활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현재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와 같은 일부 신약은 여전히 비급여로 환자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반면 정부는 2030년까지 의료용 핵심 방사성동위원소의 100% 자급화를 목표로, 생산시설 투자와 R&D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의약품 신약후보를 3종 이상 개발해 '꿈의 암 치료제'를 국산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은 향후 국내 산업의 자립도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성의약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나뉘며, 양 시장 모두 빠른 기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진단용은 낮은 에너지의 감마선이나 양전자를 활용해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및 SPECT(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영상으로 병변을 조기 탐지하며, 대표적으로 F-18을 표지한 FDG가 암 진단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용 Beta-Amyloid PET 제제와 파킨슨병 진단제 등 신경계 질환 진단제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료용은 루테튬-177이나 악티늄-225 등 고에너지 방사선을 활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암에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Novartis의 Pluvicto(플루빅토)가 전립선암 치료제로 블록버스터에 안착하면서 글로벌 치료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나아가 동일한 표적에 진단용과 치료용 동위원소를 각각 결합해 한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Theranostics(테라노스틱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이중 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국내 역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원료 동위원소의 수급, 고가의 생산설비 투자, 엄격한 규제, 보험 등재 문제는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생산 및 공급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만이 장기적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차세대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할 산업으로 전망된다.



투자포인트

1 알츠하이머 신약 시대의 관문: 뉴라체크 & 비자밀

‘뉴라체크’와 ‘비자밀’은
알츠하이머 신약 시대에 환자
선별과 모니터링을 위한 필수
진단제로, 독보적 시장 지위, 보험
등재 가능성, 급증하는 환자
수요를 바탕으로 동사의 고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핵심 자산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질환 부담을 유발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듀켄바이오의 ‘뉴라체크(Neuraceq)’와 ‘비자밀(Vizamyl)’은 아밀로이드 PET 진단제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제품은 주사 후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방사선 신호를 방출하며, PET 영상으로 뇌 내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의 조기 진단뿐 아니라 다른 치매와의 감별에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치료제 투여 전 환자 선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 자리잡았다.

동사는 2015년 두 제품을 국내에 허가받아 상용화한 이후 국내 **아밀로이드 PET 시장 점유율 94% 이상을 확보**하며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과 치매센터에서 표준 검사로 채택되었으며, FDG와 FP-CIT 사업을 통해 구축한 전국 단위의 생산 및 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반감기 제약이 큰 방사성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폭발적 수요 증가 국면에서 동사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블록버스터 ‘레켄비’(Lecanemab, Eisai[일본]/Biogen[미국])와 ‘키순라’(Donanemab, Eli Lilly[미국])가 FDA 승인을 받게 되면서, 약물 투여 전 반드시 아밀로이드 축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뉴라체크’와 ‘비자밀’의 임상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레켄비’의 경우 투약 전 진단뿐 아니라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최소 3회 이상 PET 검사가 필요**해 환자 1인당 진단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보다 ‘레켄비’ 시판 허가가 빨랐던 미국의 경우, 판매 개시 시점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위한 PET/CT 촬영 수요는 급증했다. 국내 또한 PET 검사 수요 급증에 따른 진단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국내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도인지장애 환자 약 278만 명, 치매 환자 약 97만 명 등 총 375만 명에 달하는 잠재 환자 풀이 존재하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2016년 조사했던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속도로 늘고 있어 시장 성장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두 제품은 건강보험 비급여 상태로 환자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나, 정부와 학회 간 논의를 통해 보험 등재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향후 급여화가 실현된다면 시장 확대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뉴라체크’와 ‘비자밀’은 단순한 치매 진단제를 넘어 “알츠하이머 신약 시대의 관문”으로 기능하며, 동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핵심 자산이다. 환자 수요 확대, 보험 등재 가능성, 글로벌 치료제 트렌드에 따른 진단제 필요성 증대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며, 동사의 실적은 단기적으로 안정적 증가를 넘어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레켄비'시판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기대

**“ 치매 치료제 FDA 승인으로
아밀로이드 PET/CT의
사용량 증가 견인 ”**

세계 최초의 치매 치료제 레켄비(Lecanemab)는 알츠하이머성 치매(AD)에서 신경독성과 시냅스 기능장애와 연관된 용해성 Aβ 집합체 (soluble Aβ aggregate species)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고 침착을 방지

US FDA: 사전 진단 방법으로 PET/CT, CSF만 허용
 → 혈액 진단은 선별검사로 활용(1차 스크리닝 목적)
 → 병리 확진 (PET/CT, CSF) 치료 효과 모니터링 PET/CT

국내에서는 치매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네패질, 메만틴 등이 의약품으로 허가 판매 중

- 24년 5월 국내 식약처 세계 4번째로 '레켄비' 시판 허가
 - 24년 11월부터 국내 출시 본격화

Lecanemab Binding profile
(Darker color=stronger binding)

용해성 Aβ 집합체 (soluble Aβ aggregate species)에 선택적으로 결합

Neurotoxic forms
 Monomers (9-75 kDa) → Oligomers (9-75 kDa) → Protofibrils (>75-5000 kDa) → Fibrils (>75-5000 kDa)
 Soluble → Insoluble
 Strongest binding

Graph Data (Approximate):

Week	Placebo (n=675)	Lecanemab (n=675)
0	1.0	1.0
3	0.95	0.85
6	0.9	0.75
9	0.85	0.65
12	0.8	0.55
15	0.75	0.45
18	0.7	0.35

* 출처 :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CTAD) 2022, ALZFORUM

- Aβ의 침착 정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 ▶ PET/CT 영상

- ✓ 조기 진단에 대한 강점
- ✓ 높은 정확도
- ✓ 치료효과 모니터링

독점적인 시장 경쟁력을 지닌
 치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비자밀, 뉴라체크'의 폭발적인 수요 기대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치매 환자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2030년	2040년	2044년	2050년	2059년	2070년
2023년 조사	970,759	1,014,865	1,212,315	1,795,287	2,007,848	2,258,915	2,335,939	2,238,013
2016년 조사	1,083,977	-	1,367,651	2,176,558	-	3,026,593	-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2030년	2040년	2044년	2050년	2059년	2070년
2023년 조사	2,976,787	3,138,076	3,683,909	4,077,342	5,128,767	5,350,740	5,689,983	5,355,033
2016년 조사	2,358,666	-	2,888,922	-	4,031,380	-	4,529,758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최초 PSMA 진단제, 전립선암 시장 성장의 분기점: 프로스타시크주

‘프로스타시크주’는 국내 최초 PSMA PET 진단제로, 급증하는 전립선암 환자 수요와 보험 급여 기반의 높은 접근성, 글로벌 가이드라인 권고 및 Theranostics 확산 트렌드를 바탕으로 동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고성장 시장 진입을 동시에 이끌 핵심 성장 동력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암 중 발생률 4위, 사망률 5위를 기록하는 주요 암종으로, 환자 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이성 및 재발성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정확한 병기 설정과 치료 반응 평가가 환자 예후 관리에서 핵심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SMA(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를 표적하는 PET 진단제가 글로벌 임상 현장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이미 PSMA 기반 진단 및 치료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1년 Lantheus(미국)의 ‘Pylarify’(PSMA PET)와 2022년 Novartis의 ‘Pluvicto’(177Lu-PSMA-617, 치료제)가 승인되면서 진단과 치료의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패러다임이 열렸고, 시장은 출시 1년 만에 연간 5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 2023년 식약처가 ‘Pluvicto’를 승인하면서 치료제 영역은 개화하기 시작했지만, **PSMA PET 진단제는 아직 정식 상용 제품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 듀켄바이오의 ‘18F-rhPSMA7.3(프로스

타시크주'다. 동사는 2023년 12월 Blue Earth Diagnostics(영국)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7월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하반기 10월부터 **국내 최초의 PSMA PET 진단제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프로스타시크주’는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되는 PSMA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며, 방출된 방사선 신호를 PET-CT 장비가 포착해 암의 위치와 범위를 정밀하게 영상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선명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줄이고 환자 편의성은 높였다. 특히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는 PET-CT **단독 사용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추가 영상검사 없이도 간소화된 진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PET-CT 촬영과 ‘프로스타시크주’ 사용이 함께 늘어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23년 FDA 승인 이후 **‘Posluma’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기존 ‘Pylarify’가 과점하던 시장에서 빠르게 5%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신규 환자 약 3만 명, 누적 환자 13만 명 규모의 전립선암 환자 풀이 존재하며, 이미 전립선암 PET-CT 행위에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환자 접근성도 확보된 상황이다. 동사는 FDG를 통해 구축한 **전국적 제조 및 공급 인프라**를 활용해 ‘프로스타시크주’를 즉시 생산과 공급할 수 있어,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연 수천 건 이상의 검사 수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환자 증가세와 함께 시장 규모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 관점에서 ‘프로스타시크주’는 동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성장성 제고에 있어 전략적 의미가 크다. FDG가 암 진단을 포괄하는 범용 진단제라면, ‘프로스타시크주’는 특정 암종(전립선암)에 특화된 진단제로서 제품 다변화와 고성장 시장 진입을 동시에 가능케 한다. 더 나아가 ‘Pluvicto’ 등 PSMA 표적 치료제와의 Theranostics 연계가 본격화되면, 동사는 단순 진단제 공급업체를 넘어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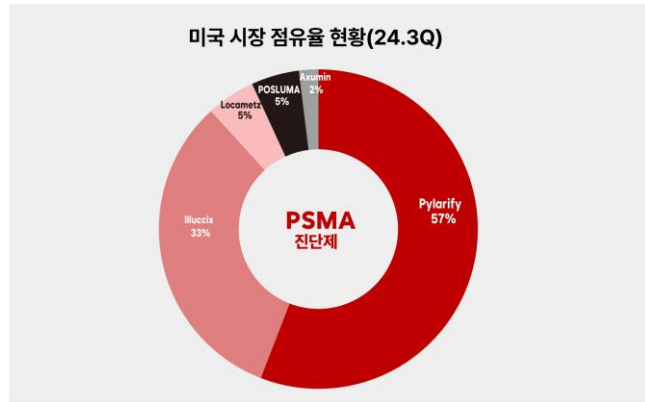
물론 초기에는 임상 현장의 도입 속도, 보험 기준 적용 범위, 경쟁 제품 출현 여부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임상 검증, NCCN 가이드라인 권고, 기존 PET 보험 급여 체계라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진입 장벽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프로스타시크주’의 상용화는 동사가 안정적 현금창출원(FDG)에 더해 고성장 잠재력을 갖춘 전립선암 진단제를 추가하며,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 리더십 강화와 Theranostics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이라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SMA 진단용 프로스타시크주

2024년 출시 이후, 미국에서 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 보유

Posluma 특징

- ① 신규 전립선암 환자: 높은 특이도를 나타냄
- ② 전립선암 재발 의심 환자
→ 위치지 분석을 위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검증된 탐지율 제공
→ 우수한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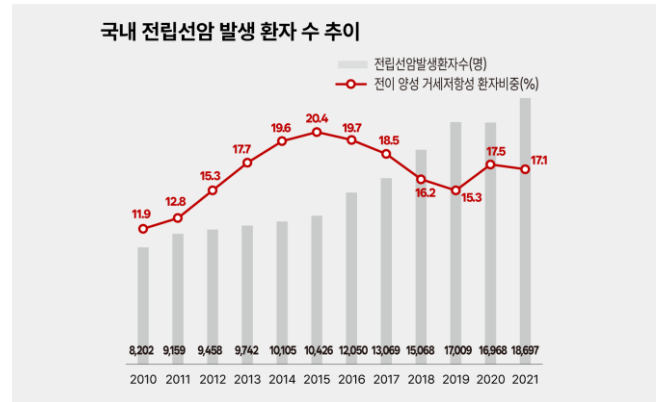


자료: Blue Earth Diagnostics 2024,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전립선암 PET/CT 진단 시장 성장 요인

국내 전립선암 PET/CT 진단 시장의 가파른 성장 요인

- ① (국내) 2025년은 PSMA PET/CT 진출 원년으로 개화기
- ② (국내) 행위급여로 인한 수요 증가 예상
- ③ (국내) 4,300개 이상의 전립선암 전문 병원의 진단 수요 기대
- ④ (국내) 전립선암 환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7.8% 증가
→ 2023년 기준 신규환자 30,857명/ 전립선암 누적 환자 134,933명
- ⑤ (해외) PSMA PET/CT 사용시, 타 영상검사의 선행 불필요 지침 (NCCN)



자료: 듀켄바이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NCCN Guideline 등재 PSMA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NCCN Guidelines®)

Prostate Cancer

Version 2.2025 — April 16, 2025

NCCN.org

The NCCN Prostate Cancer Panel recommends Lu-177-PSMA-617 as a category 1,.... Although the FDA has approved Ga-68 PSMA-11 for use with Lu-177-PSMA-617, the panel believes that F-18 piflutofolastat PSMA and **F-18 flutofolastat** PSMA can also be used in the same space due to multiple reports describing the equivalency of these imaging agents.

자료: 미국 국립 종합 암센터 네트워크 NCCN Guideline 2025,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리뷰

2024년 외형 성장은
제한적이었으나, 알츠하이머
진단제(뉴라체크&비자말)의
수요 확대와 순이익 급증을 통해
미래 성장 모멘텀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확인한 한 해

듀켄바이오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356억 원(+2.6% YoY)**, 영업이익 **51억 원(-3.4% YoY)**, 지배주주 당기순 이익 75억 원(+84.0% YoY)을 기록했다. 외형 성장은 제한적이었으나, 핵심 사업인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며 매출을 소폭 확대했다. 영업이익은 판관비 부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순이익 급증에는 과거 법인세 총당금 조정 및 세무상 효과로 인한 법인세 환입이 일회성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업별로는 알츠하이머 진단제(뉴라체크&비자말)가 성장세를 견인했다. 두 제품은 국내 아밀로이드 PET 시장 점유율 94% 이상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Lecanemab, Eisai/Biogen)의 국내 허가 및 상용화 이후(2024.11), 치료제 투여 전 환자 선별을 위한 PET 진단 수요 확대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말부터 주요 대학병원에서 아밀로이드 PET 검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기존 주력 제품인 FDG(악성종양, 심혈관, 간질 진단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했다. 다만 시장 성숙과 MRI등 같은 대체제들도 존재하는 상황으로 성장 여력은 제한적이다. FP-CIT(파킨슨병 진단제) 역시 국내 신경과 및 핵 의학과에서 표준 진단제로 자리매김하며 안정적 수요를 유지했고, 대만 등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장의 교두보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4년은 동사에 있어 외형 성장률은 제한적이었으나, 알츠하이머 진단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래 매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다. 또한 순이익 급증으로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진단제 상용화와 CDMO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여력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25년 실적 전망

2025년 들어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뉴라체크&비자말)와
전립선암 진단제 '프로스타시크주'
라는 투톱 성장 축을 기반으로
외형과 수익성 모두에서 고성장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듀켄바이오는 2025년은 **실적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시발점**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뉴라체크&비자말)의 수요 상승이다. 2024년 말부터 본격 처방이 시작된 '레켄비'(Lecanemab) 투여 전에는 반드시 아밀로이드 축적 검사가 필요하고, 투약 후 효과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최소 3회 이상의 PET 검사가 요구된다. 국내 기준 잠재 환자군은 경도인지장애 약 278만 명, 치매 환자 약 97만 명 등 총 375만 명 규모에 달하며, 이 중 일 부만 검사를 받아도 진단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치매 진단제 매출은 2024년 대비 두 자릿수 중반 성장세가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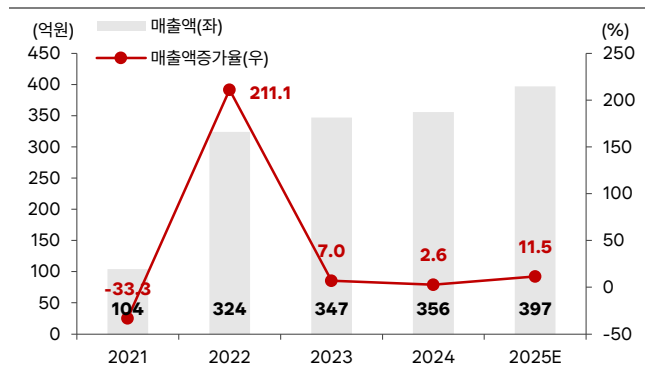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전립선암 진단제 '프로스타시크주'의 출시(2025년 하반기 예정)가 성장성을 배가시킬 준비를 할 전망이다.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암 중 발생률 4위, 사망률 5위에 해당하며, 매년 신규 환자가 3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정식 허가된 PSMA PET 진단제가 없어, '프로스타시크주'의 상용화는 사실상 시장 개화와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PET-CT 급여 적용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FDG 기반 전국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빠른 도입 확산을 뒷받침한다. 다만, 제품 공급이 2025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해당 연도의 실적 기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PSMA 표적 치료제(Pluvicto)와의 Theranostics 연계로 추가 성장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재무적 관점에서,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double-digit 성장한 397억 원(+11.5% YoY)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뉴라체크’ & ‘비자밀’ 매출 확대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은 57억원(+12.3% YoY)으로, 매출 증가율과 유사한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지배주주 순이익은 55억 원(-26.7% YoY)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24년에 발생한 일회성 법인세 환입 효과의 기저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본질적인 수익성 악화보다는 회계적 효과에 기인한 감소로 해석된다. 실적 흐름을 보면, 2025년 2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95억 원(+1.7% YoY, +12.4% QoQ), 영업이익 19억 원(+1.8% YoY, +181.8% QoQ)을 기록하며 분기별 계단식 성장을 보이며 뚜렷한 턴어라운드 흐름을 입증했다. 이는 일부 비주력 사업 철수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치매 진단제 매출의 급격한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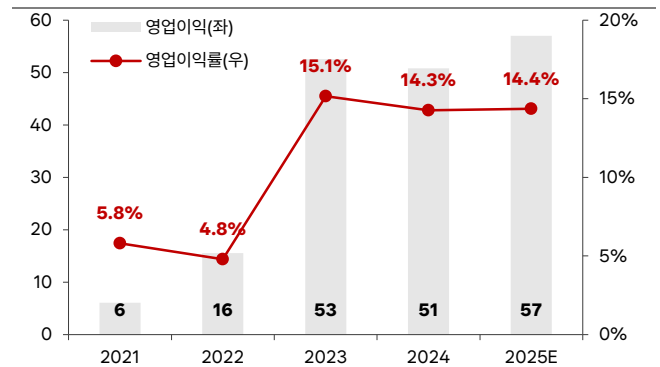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25년은 동사가 **국내 치매 및 전립선암 진단제 시장의 투톱 성장**을 기반으로 외형과 수익성 모두에서 도약을 시작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FDG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가운데, 치매 진단제의 고성장과 전립선암 진단제의 신규 매출 기여가 맞물리며 2026년부터 동사는 안정적 성장에서 **고성장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매출액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324	347	356	397
증가율 (%)	211.1	7.0	2.6	11.5
FDG	198	207	208	225
FP-CIT	37	40	34	44
비자밀/뉴라체크	41	45	51	78
상품	32	40	43	38
기타	15	14	18	12
매출원가	237	229	234	261
매출원가율 (%)	73.1	66.0	65.7	65.7
영업이익	16	53	51	57
영업이익률 (%)	4.8	15.1	14.3	14.4
증가율 (%)	156.9	238.0	-3.4	12.3
세전계속사업이익	-27	41	47	56
증가율 (%)	적전	흑전	15.0	17.9
당기순이익	-28	41	75	55
순이익률 (%)	-8.7	11.7	21.0	13.8
증가율 (%)	적전	흑전	84.0	-26.7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6	41	75	55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5년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제 성장과 FDG 안정적 매출로 외형을 확대하지만, 본격적인 성장세는 2026년부터 전립선암 진단제 ‘프로스타시크주’의 본격 매출 반영과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며, 현재 높은 PER은 향후 실적 가속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

앞서 추정한 듀캠바이오의 2025년 실적 전망치를 반영할 경우, 예상 밸류에이션 지표는 **PER 54.8배, PBR 6.3배, ROE 12.2%** 수준이다. 2024년 12월 코스닥 상장 이후 첫 해인 2025년은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뉴라체크 & 비자밀) 매출 확대와 안정적인 FDG 기반의 현금흐름이 실적을 견인하겠지만, 전립선암 진단제 ‘프로스타시크주’가 하반기 일부에만 반영되면서 **외형 성장률은 10%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 진입 전의 **전환기적 성격**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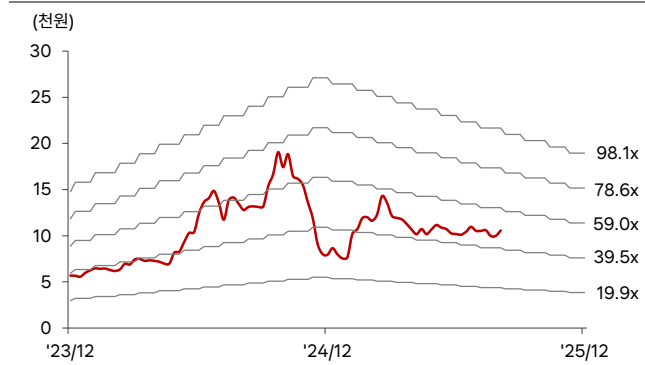
동사는 상장 이후 PER 밴드가 19.2~77.5배, PBR 밴드가 3.6~13.2배 구간에서 형성되었다. 현재 추정치 기준 PER 54.8배는 밴드의 중상단부에 해당하며, 이는 단기 실적보다는 2026년 이후의 성장성을 선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PBR 6.3배 역시 역사적 밴드의 중간 수준으로, 시장이 동사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해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만을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6년부터는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년 10월 출시 예정인 ‘프로스타시크주’가 전년 대비 연간 실적에 온전히 신규 매출로 반영되며, 기존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의 성장세와 맞물려 **외형과 수익성이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캠비’ 처방 확대가 PET 검사 건수 증가로 직결되면서 ‘뉴라체크’ 및 ‘비자밀’의 성장성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만약 ‘프로스타시크주’와 ‘Pluvicto’의 Theranostics 연계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동사의 진단제 사업은 진단 및 치료 일체형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

현재 PER 54.8배는 절대치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나, 동사가 보유한 제품 포트폴리오(FDG, FP-CIT, 뉴라체크, 비자밀, 프로스타시크주)와 **전국 단위 공급망**, 그리고 향후 동사가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 글로벌 CDMO 수주 파트너십을 통한 성장 잠재 옵션을 고려할 때 단순한 단기 실적 대비 평가는 적절치 않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26년은 ‘프로스타시크주’의 본격적 매출 반영과 알츠하이머 진단제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맞물리며 **실적 가시성이 크게 개선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높은 멀티플은 향후 1~2년 내 실적 성장 가속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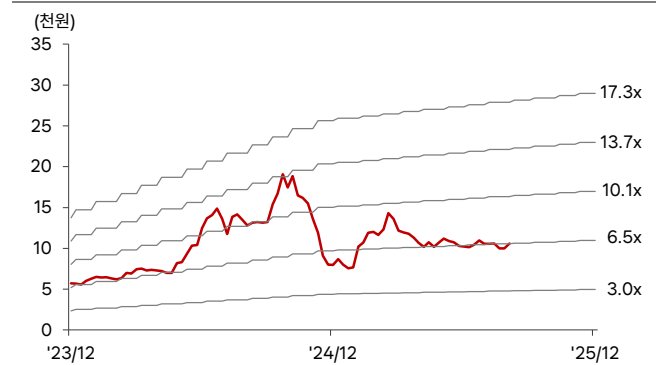
이에 따라, 듀캠바이오의 단기적으로는 실적 레퍼런스 부족으로 인해 높은 멀티플 부담을 안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스토리의 실현과 이익 안정화**를 통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접근이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듀캠바이오 PE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듀캠바이오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알츠하이머 진단제 매출의
레켄비 처방 의존도와 177Lu
기반 신규 CDMO 사업의 초기
불확실성이라는 단기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FDG 기반 안정적
현금흐름과 전국적 공급망, 독점적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 지위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

최근 듀켄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진단제와 전립선암 진단제 등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투자자 관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이는 동사의 중장기 성장성을 부정하기보다는,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 ‘뉴라체크’와 ‘비자밀’의 **레켄비 의존도 리스크**다. 동사의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 매출은 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Eisai/Biogen)의 국내 처방 확산 속도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레켄비’가 2024년 11월 말 국내에 출시되며 연초에는 PET 진단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병원 코드인 및 처방 가능 병원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특히 2025년 5~6월에는 일부 상급병원에서의 검사 수용 능력 부족으로 병목현상이 나타나면서, PET 검사 건수가 시장의 초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동사의 진단제 매출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보다는 ‘레켄비’의 상용화 속도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레켄비’ 처방 트렌드가 동사의 실적 가시화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켄비’의 병원 확산 속도와 처방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다. 동사는 177Lu(루테튬-177) 기반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며, 일본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177Lu는 진단과 치료를 결합한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분야의 핵심 동위원소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Pluvicto’(전립선암 치료제)와 ‘Lutathera’(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 다만, CDMO 사업은 초기 파트너십 구축, 각국의 규제 승인,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아직 시장이 동사의 CDMO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업이 향후 기업 가치에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요 파트너사와의 계약 진행 상황과 초기 생산 역량 구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켄바이오는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FDG 기반의 안정적 현금 흐름**, 알츠하이머 PET 진단제의 독점적 시장 지위, 그리고 전국 단위의 **GMP 인증 제조소 네트워크**는 장기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동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스토리가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으며, 이는 투자 매력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04	324	347	356	397
증가율(%)	-33.3	211.1	7.0	2.6	11.5
매출원가	75	237	229	234	261
매출원가율(%)	72.1	73.1	66.0	65.7	65.7
매출총이익	29	87	118	122	136
매출이익률(%)	27.9	26.8	34.0	34.4	34.3
판매관리비	23	71	65	72	79
판매비율(%)	22.1	21.9	18.7	20.2	19.9
EBITDA	35	89	110	106	108
EBITDA 이익률(%)	34.0	27.3	31.8	29.9	27.3
증가율(%)	1,166.6	150.2	24.4	-3.4	1.9
영업이익	6	16	53	51	57
영업이익률(%)	5.8	4.8	15.1	14.3	14.4
증가율(%)	흑전	156.9	238.0	-3.4	12.3
영업외손익	10	-45	-11	-3	-1
금융수익	16	10	2	8	9
금융비용	6	16	14	11	10
기타영업외손익	0	-40	1	0	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3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6	-27	41	47	56
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15.0	17.9
법인세비용	0	1	1	-27	1
계속사업이익	16	-28	41	75	55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6	-28	41	75	55
당기순이익률(%)	15.4	-8.7	11.7	21.0	13.8
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84.0	-26.7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16	-26	41	75	55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	82	84	78	94
당기순이익	16	-28	41	75	55
유형자산 상각비	26	62	48	46	43
무형자산 상각비	3	11	10	10	9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2	-7	-23	-27	-8
기타	-12	44	8	-26	-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	-3	-13	-26	-1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5	-4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0	-7	-11	-16	-15
기타	4	4	-2	-5	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	-65	-78	35	3
차입금의 증가(감소)	31	7	-53	-54	3
사채의증가(감소)	0	-44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114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36	-28	-25	-25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20
현금의증가(감소)	10	14	-6	87	63
기초현금	0	12	26	20	107
기말현금	10	26	20	107	170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98	123	127	222	298
현금성자산	10	26	20	107	170
단기투자자산	0	0	0	0	0
매출채권	67	80	83	97	108
재고자산	12	8	13	13	15
기타유동자산	11	9	11	6	7
비유동자산	444	390	363	421	409
유형자산	165	115	96	87	79
무형자산	160	181	174	165	157
투자자산	20	25	20	45	49
기타비유동자산	99	69	73	124	124
자산총계	542	514	490	643	707
유동부채	285	242	194	149	157
단기차입금	95	127	82	36	36
매입채무	8	9	13	12	13
기타유동부채	182	106	99	101	108
비유동부채	92	96	81	72	73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16	12	0	0
기타비유동부채	92	80	69	72	73
부채총계	377	338	275	222	230
자배주주지분	165	176	215	422	477
자본금	139	139	139	146	146
자본잉여금	30	66	74	183	183
자본조정 등	-20	-19	-25	-8	-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16	-10	26	101	156
자본총계	165	176	215	422	477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75.0	N/A	36.5	29.5	54.8
P/B(배)	13.2	7.6	6.9	5.5	6.3
P/S(배)	11.6	4.1	4.3	6.2	7.6
EV/EBITDA(배)	70.3	17.9	15.3	22.4	27.9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108	-105	151	276	193
BPS(원)	612	651	794	1,482	1,675
SPS(원)	699	1,201	1,284	1,314	1,395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42.7	-16.6	20.8	23.5	12.2
ROA	4.5	-5.4	8.1	13.2	8.1
ROIC	2.6	4.6	15.4	15.6	17.3
안정성(%)					
유동비율	34.5	51.0	65.4	149.0	189.8
부채비율	228.5	191.9	128.0	52.5	48.3
순차입금비율	186.4	139.3	92.1	16.3	1.9
이자보상배율	0.9	1.0	3.9	4.7	5.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3	0.6	0.7	0.6	0.6
매출채권회전율	2.2	4.4	4.2	4.0	3.9
재고자산회전율	12.1	33.7	33.4	27.3	28.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듀캠바이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9.10	방사성의약품 Next Chapter, 치매와 전립선암 진단의 새로운 지평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